

# 진도 모바일 헬스케어 '군민 주치의' 역할

### 스마트폰 통한 영양·신체활동 관리 2기 대상자 24일~6월4일까지 모집

진도군이 운영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외 활동이 위축된 주민들에게 '건강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2일 진도군보건소에 따르면 군은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 60여명에게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효과를 봤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의사·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가 모바일 앱과 활동량을 체크하는 스마트 밴드를 통해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분야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영양, 신체활동, 건강 상담과 함께 휴대폰 모바일 앱을 활용해 1만보 걷기 인증, 하루 식사 인증, 설문 조사 등 건강 미션을 수행했다.

최초 검진 수치와 비교해 6개월 동안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건강 상담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들은 최초 검진에 비해 골격근량, 혈압, 체지방률 등



진도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가한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개선된 건강 수치를 확인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종 검진에서는 절주 상담과 B형, C형 간염 검사를 추가로 제공받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효과에 따라 2기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6월4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

한 사항은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가로 시작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완도군, 국제수산물전시회서 지역 수산물 우수성 알려

### 지역 수출기업 7곳과 공동관 운영 전복·해조류·김·해초 등 홍보

완도군이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전시회에 참가해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완도군은 수산 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국내의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업자와의 교류를 통한 최적의 수출·내수 비즈니스 기회의 장인 서울 국제 수산물 전시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수산물 전시회'에 참가해 완도지역 수출 기업 7곳과 함께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전시회에는 활 전복, 전복 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 샐러드, 해초 국수, 전복장, 전복 절편 등 다양한 수산 식품을 선보였다.

군은 공동관 운영뿐만 아니라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관을 마련,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소식도 적극 홍보했다.



완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1 서울 국제 수산물 전시회'에 참가해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홍보 부스도 마련해 아시아 최초 전복 ASC 인증 및 세계 최초, 최다로 획득한 해조류 ASC-MSC 인증에 대해서도 알렸다.

완도군 관계자는 "향후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박

람회에 참가해 공동관 운영으로 수출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수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시, 3억 들여 영산강 카누장 인근에 리틀야구장 조성

목포의 야구 꿈나무들이 리틀야구장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영산강 카누장 인근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리틀야구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야구장은 5700㎡ 체육시설 용지에 1면을 조성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그라운드면을 마사토로 보강했다.

또 활동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안전 펜스와 덕아웃·휴게실 등을 설치했다.

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인조잔디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리틀야구장이 개장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야구 인구 저변 확대와 야구를 사랑하는 꿈나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양=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고즈넉한 영암 구림마을 돌담길.

<영암군 제공>

# 2200년 역사 구림마을 종가집서 시간여행 즐겨요

### 영암군, 15일~11월까지 추진 마을·인물 등 인문학적 성찰

영암군이 오는 15일부터 11월까지 구림마을 일원에서 '영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문화재청 공모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구림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곳곳에 숨어있는 마을 이야기, 사람 이야기, 나무 이야기, 건물 이야기 등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암 구림마을은 22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는 450여년 전통의 대동계가 현존한다.

백제 왕인박사, 신라말 도선국사, 고려초 최지몽 선생, 1555년 을묘왜변(최경창), 1593년 이순신을 도운 연주현, 조선 후기 실학의 새로운 싹을 틔운 박세채와 박태초 등이 있었고 3·1 독립운동 때 의기를 모은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구림마을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자연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영암군의 문화유산 중 약 40%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종가를 찾아가며 구림마을과 죽정마을 돌담길을 따라 한가로운 거닐며 마을을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구림마을에서 과거와 현재를 함께 만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무안군-인삼공사, 무안양파 소비 활성화 손잡다

### 42t 구매계약·업무협약

무안군이 지난 11일 한국인삼공사(이하 KGC 인삼공사)와 무안양파 소비촉진·신제품 개발·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김산 무안군수와 민경성 KGC인삼공사 견식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협약식은 양파 42t 구매계약과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KGC인삼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과 자연소재 건강식품 브랜드 굿베이스 등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 건강기업이다.

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농가 지원과 정보 공유 등 우수한 품질의 양파 생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KGC인삼공사는 무안 양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판매 등 장기적 계약관계 유지 노력을 통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KGC인삼공사와의 영업 제휴를 통해 무안군 농산물의 판로가 크게 확대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이 증가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